지상백고좌

조계종 어산어장 동주 원명 스님

“경율론 잘해야 범패도 잘할 수 있습니다”



동주 원명 스님은… 1961년 서울 사자암에서 대은 강백을 은사로 사미계를 수지하고 대교과 과정까지 배웠다. 이후 벽응 송암 스님에게 범패를 배웠으며 1969년 설립된 옥천범음회에서 제1회 영산재 전과정을 이수했다. 1972년 직지사에서 고암 스님을 전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결제때는 해인사 등 선원에서 정진하고 해제 때는 범패 수련 및 연구에 몰두했다. 1977년부터 1993년까지 서울 사자암 주지를 맡아 중창불사를 완료했다. 조계종 행자교육원 교수사, 계단위원, 성보전문위원 등을 역임했고 2006년 조계종 초대 어산어장에 지정됐다. 현재는 서울 홍원사 회주,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전수교육조교다.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위치한 홍원사에 들어서면 7층 석탑과 쌍사자, 석등, 포대 화상이 반겨준다. 활짝 핀 능소화는 담장을 장식하고 있으며, 배롱나무의 붉은 꽃은 도량을 환하게 밝히고 있다. 창건주 동주 원명 스님이 천일기도를 회향하고 사찰을 건립하기 위해 명당을 물색했다. 그러다 발견한 것이 옛 양천관아 터이고, 그 위에 현대식 건물로 홍원사를 지었다.

조계종 초대 어산어장 동주 원명 스님의 인터뷰는 스님의 주석처 홍원사에서 진행했다.

어산(魚山)은 범패, 범음이라고도 한다.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불교의식으로, 소리와 춤이 있다. 어산은 가곡, 판소리와 함께 한국 3대 성악으로 불릴 정도로 한국 전통음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어장은 영산재, 수륙재, 예수재 등 불교의 재(齋)의식을 총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범패스님을 가리키는 말이다.

요즘 근황을 여쭈었더니 “올 6월에 정오스님과 함께 〈오종범음역해〉를 15년 걸려 출간했기에 숙제를 마친 느낌으로 홀가분하게 지내고 있어요”라고 했다.

곧바로 범패와 인연을 맺게 된 계기를 물었다. 스님은 ‘운명’이라고 말하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아버지가 스님이라서 어릴 때부터 염불과 범패에 익숙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천수경〉 〈반야심경〉 〈고왕경〉 등을 다 외웠어요. 아버지를 따라간 절에서 범패를 하고 바라춤을 추는데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스님이 되겠다고 결심했지요.”

16살 때 심하게 아파서 죽음을 경험했다. 숨만 겨우 쉴 수 있을 정도였는데 죽더라도 유언은 남기고 싶었다. “내 병을 고치지 못하고 죽으면 영혼 수계식을 해달라”고 했다. 그렇게 해야 다음 생에 일찍 출가를 할 것 같았다. 그때 만약 내가 살아나면 반드시 출가하겠다고 결심했다. 17살에 대은 스님으로부터 사미계를 받았다. 직지사에서 고암 대종사로부터 비구계를 수지했다. 대강백으로 이름난 은사 대은 스님으로부터 대교과를 수료했다. 기억력이 좋으니 아무리 많은 분량을 가르쳐주어도 배우는 대로 다 외웠단다.

스님의 출가 당시에는 서울에서는 사미계 받고 나면 정해진 코스처럼 범패를 배웠다.

“은사 대은 스님께서 ‘범패를 배워야 중물이 든다’면서 출가하자마자 범패를 배우라고 했어요. 그때는 ‘중질할 줄 아느냐?’라는 말은 바로 ‘범패를 할 줄 아느냐’라는 뜻이었어요.”

은사스님의 말씀을 부처님 말씀으로 여겼으니, 서울 봉원사에 가서 상주권공(常住勸供)을 배웠다. 상주권공은 처음 범패를 배울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죽은 이를 위한 재이다. 이렇게 해서 송암 스님과 인연이 시작되었다.

“하루에 한 마디를 배우면 그것을 가지고 하루 10시간씩 연습했어요. 새벽 예불 올리고 시간 나면 연습하고, 저녁 예불하고 시간이 나면 또 혼자서 연습을 했어요. 송암 스님의 시봉을 제가 도맡아서 다했기에 재하

16살 죽을 고비 넘긴 후 佛門 들어
은사 대은 스님 권유로 ‘범패’ 배워
범패, 경율론 바른 이해 있어야 가능

임종 시 가족들 울며 소리치는 것
망자가 生 정리할 시간 뺏는 행위
생의 애착도 원한만큼 좋지 않아

러 가실 때 늘 모시고 다녔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혼자 100번 연습하는 것보다 선생하고 10번 하는 것이 낫고, 선생님하고 10번 하는 것보다 재장(齋場)에서 재 지내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어요. 재장에서 보고 들은 것이 많았기에 관련 의식을 이틀 만에 다 배웠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한 번 들은 것은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기억력이 좋았어요”

동주 원명 스님은 독강으로 3년 만에 범패 전 과정을 다 배웠다. 다른 사람이 10년에 걸쳐 배울 것을 스님은 3년 만에 다 익혔으니 범패 천재라고 해야 할 것 같다. 동주 원명 스님은 선방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 밤을 새워가며 범패공부를 했다.

“어산을 하려면 경·율·론(經律論)을 모두 공부해야 합니다. 〈화엄경〉 〈정토경〉 〈법화경〉 〈조사어록〉을 바탕으로 해서 의식을 만들었기에 경전을 모르면 어산으로 활동하기가 힘들지요. 영혼 천도를 하려면 영과 마음이 통해야 하기에 계행이 청정해야 합니다. 시식, 대령, 관욕은 자격 있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자격이란 법력을 말하는데, 참선이든, 염불이든, 기도든 수행력이 있어야 해요.”

해인사, 통도사, 송광사, 문경 대승사 등 제방 선원에서 칠 년여 참선 공부를 하였다. 선원에 계실 때 기억나는 일화가 있는지 물으니, 극락암에서 여섯 철을 살면서 일어난 이야기를 들려줬다.

“1972년 동안거 선방에 한 80명 넘게 모였어요. 극락암에 경봉 조실스님이 계셨는데, 연세가 많은 노장이라 돌아가시기 전에 지도를 받으려고 많은 스님이 모여들었어요. 10월 그믐날 종사영반이 있어요. 해마다 삼삼조사로부터 보조국사, 서산·사명 조사의 다례(茶禮)를 지내는 행사입니다. 영산재를 지내야 하는데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경봉 스님께서 사흘 동안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도, 저는 모르는 척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 보통 난감한 일이 아닌 것 같아 경봉 조실스님을 찾아뵙고 의식을 좀 배웠다고 말했어요. 그때부터 내가 의식과 범패를 할 줄 아는 것이 들통이 나서 사흘이 멀다하고 불러냈어요.” 10년은 수좌로 살고 싶었는데, 참선 공부하러 왔는데 재를 올린다고 자꾸 불러내서 난감했다고 한다.

“처음에 선방에 가서 한 2, 3년은 오로지 정진에만 마음을 쏟았어요. 수좌 생활이 몸에 익혀지자 3년쯤 지나서는 해제에도 나오지 않고 선방에서만 지냈어요. 그때 혼자 고요한 산사에서 마당을 돌면서 그전에 배웠던 범패를 해봤어요. 그때서야 범패의 진수를 알았어요. 배울 때는 가락 외우느라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었는데 몇 년간 수행정진을 하면서 몸과 마음이 청정해져서인지 그 소리의 본래 경지가 느껴졌어요. 배운 소리를 해보니 이것이 바로 천상에서 천신들이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소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리를 하다가 잠시라도 마음이 흐트러지면 소리가 다른 데로 가버려서 엉망이 되니, 마음이 고요하고 일심이 되어야 소리가 되는 것이란다. 스님은 소리라는 것은 선정의 극치에서 나온다는 것을 실감했으며, 그것이 바로 부처님 세계라고 덧붙였다.

13면에 계속

1994~2024 창간 30주년 축하광고 접수안내

귀의삼보 하옵니다.
1994년 10월 15일 창간호를 시작으로 불교언론발전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이
2024년 10월 15일 창간 30주년을 맞습니다.
현대불교신문에 베풀어주신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24년 10월 16일 창간 특집호를 준비하오니 두루 동참해 주시어
부처님의 법음이 세상 곳곳에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사	T. 02)2004-8204	F. 02)737-0698
경남지사	010-3860-7008	성낙두
부산지사	010-5640-8883	이도경
대구지사	010-2813-8008	손문철

전남지사	010-2629-1508	양행선
전북지사	010-8642-7733	조동제
충청지사	010-8341-0560	유재상
영주지국	010-9373-3778	박영애

광고내용
임원명단, 축하문구, 이미지

접수문의
02)2004-8204 hyunbul1994@naver.com

계좌번호
농협 053-01-269088 (주)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